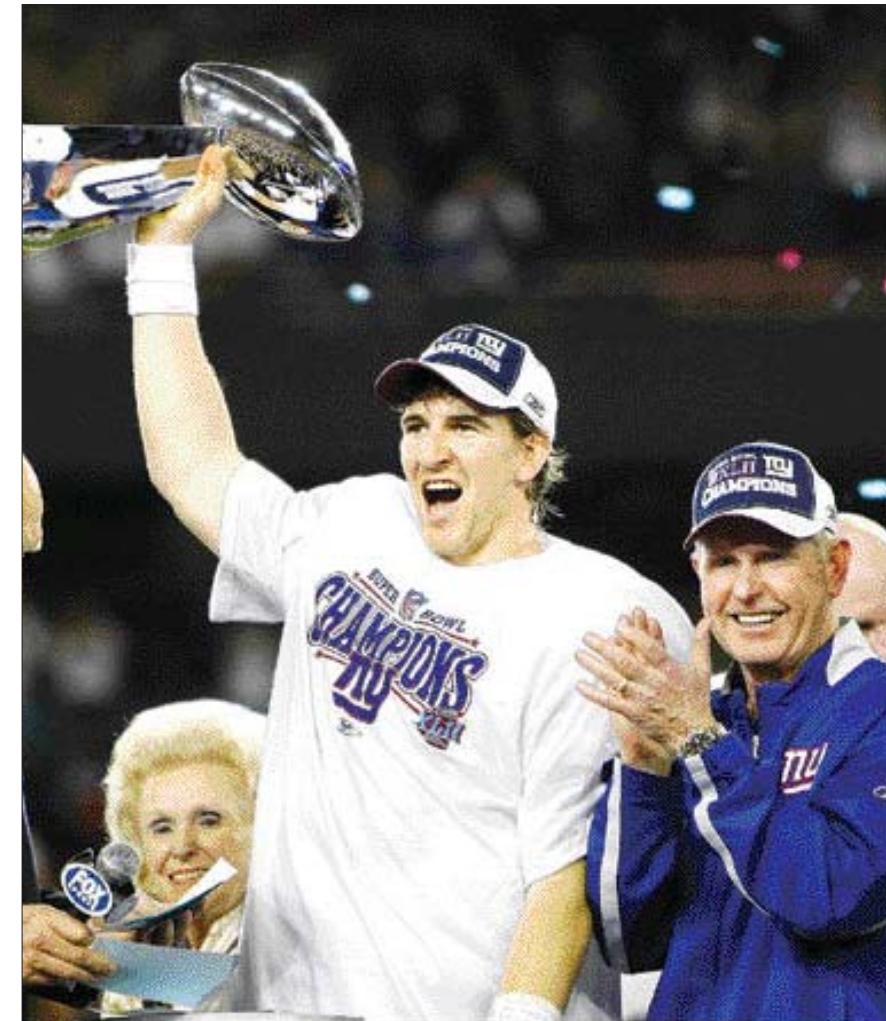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4일 오후 파주 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 자이언츠 쿼터백 엘리 매닝이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17-14로 꺾은 후 빙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해외파 3인방에 'SOS'

(박지성·이영표·설기현)

주전 잇단 부상 따른 공격진 붕괴 위기

6일 투르크메니스탄전 승리 견인 기대

박지성, 박주영과 '개임 메이커' 가능성

'공격진의 붕괴로 위기에 몰린 허정무호의 '구세주'는 누가 될 것인가?'

설 연휴 첫날인 6일 허정무호가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를 갖는다.

그러나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과 감작스런 컨디션 난조로 허정무호는 현재 위기상황. 지난달 30일 칠레전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를 보여준 대표팀은 공격수 정조국(24·서울)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고, 긴급수혈된 조재진(27)도 장염으로 입원했다.

노련한 수문장 김병희(38·서울)도 부상으

로 팀을 떠났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쟁겨야 하는 허정무호는 프리미어리그 3종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31·토트넘)·설기현(27·풀럼)에게 승리를 위한 중임을 맡겼다.

지난 3일 입국한 이영표·설기현은 곧장 대표팀에 합류해 팀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될 박지성도 4일 오후에야 입국했지만 밤을 맞출 시간이 넘었지 않다.

허정무호의 희망으로 떠온 3총사는 8년 전 허정무호 대표팀 감독 시절 이미 호흡을 같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빠른 적응으로 최상



4일 오전 캐나다 웨브시티에서 벌어진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500m 결승에서 곽윤기(신목고)가 역주하고 있다. 곽윤기는 이날 41초403으로 골인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호석·성시백·곽윤기 2관왕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대회

이호석(경희대)과 성시백(연세대), 곽윤기(신목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이호석, 성시백, 곽윤기는 4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웨브시티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5,000m 계주에 나란히 출전, 결승에서 미국(6분49초544)과 박빙의 레이스를 펼친 끝에 한국(6분49초098)의 금메달

을 이끌어 냈다.

이호석 전날 1,500m와 1,000m 1차 레이스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던 이호석과 성시백은 계주 우승에 기여하면서 금메달을 추가, 2관왕이 됐다.

남자 대표팀 막내 곽윤기도 앞서 치러진 이날 500m 남자 결승에서 41초403으로 활스 헤밀린(캐나다·41초509)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해 계주 우승을 합쳐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결승에서 실격해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세마스포츠는 배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인 점을 감안해 애초 속소인 중구

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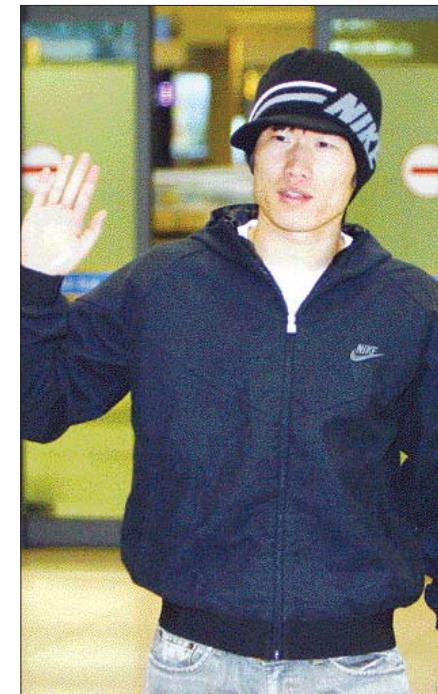
세계적인 미남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이 3월 1일 FC서울과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5박6일 동안 한국에 머물더라고 호사스러운 특별 대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갤럭시의 코리아투어 개최를 성사시킨 세마스포츠미케팅 이성환 이사는 4일 "배컴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방한하게 돼 다른 팀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마스포츠는 배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인 점을 감안해 애초 속소인 중구

을 이끌어 냈다.

세계적인 미남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이 3월 1일 FC서울과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5박6일 동안 한국에 머물더라고 호사스러운 특별 대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갤럭시의 코리아투어 개최를 성사시킨 세마스포츠미케팅 이성환 이사는 4일 "배컴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방한하게 돼 다른 팀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마스포츠는 배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인 점을 감안해 애초 속소인 중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투르크메니스탄팀

전력 '들쭉날쭉'...FIFA 랭킹 128위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예선리그 A조 1차전이 열린 1998년 12월 2일 태국 방콕의 나콘사완 경기장.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만났다. 양국 A대표팀 간 첫 맞대결이었다.

한국은 전반 최윤수의 두 골로 서전을 깔끔하게 승리로 장식하는 듯 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최윤열의 자책골을 포함해 내리 세 골을 내주고 충격적인 2-3 역전패를 당했다. 후반 25분 이병근이 퇴장당하는 등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9년 여 만에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이 허정무호 앞에 섰다. 이번에는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첫 대

로 한국을 찾았다.

1991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축구협회를 창설했고, 1994년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했다. 아시안컵 예선은 1996년, 월드컵 예선은 1998년 대회부터 참가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28위로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41위)에 한 수 아래다.

하지만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2004년 대회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2로 비기는 등 전력이 들쭉날쭉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소공동 롯데호텔에 별도의 스위트 룸을 마련해 출 계획이었으나 구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컴은 팀 동료와 마찬가지로 일반 룸을 사용하게 된다.

롯데호텔		별도의 스위트 룸	
광주	3,500	충	실버 1,700
남광주	4,400	원	클럽 1,900
광주	6,400	도	로얄 2,100
상금		문의 (062)351-0095	

뉴욕 '슈퍼볼' 차지

뉴잉글랜드 17-14 꺾고 18년만에 우승

NFL 챔피언 결정전

뉴욕 자이언츠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17-14로 꺾은 후 빙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NFL 챔피언 결정전

뉴욕 자이언츠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전승 우승을 좌절시키고 18년 만에 빙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되찾았다.

내셔널콘퍼런스 팀 뉴욕 자이언츠는 4일 아리조나주 글렌데일 피닉스 대학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2회 슈퍼볼에서 4쿼터 종료 39초 전에 디진 와이드리시버 플레이시코 버레스의 13야드 터치다운에 힘입어 18전 전승을 달리던 아메리칸콘퍼런스 정상 뉴잉글랜드를 17-14로 누르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로써 뉴욕은 1986년, 1990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슈퍼볼 정상을 밟았다. 뉴욕은 정규 시즌에서 10승6패를 거둬 와일드카드로 아열사리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4전 전승의 과정으로 거하며 뉴잉글랜드마저 넘어섰다. 반면 1972년 마이애미 돌핀스(17전 전승 우승) 이후 3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전승 우승 신화에 도전했던 뉴잉글랜드는 막판 수비진 체력저하로 다 잡았던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2002, 2003~2004년에 이어 네 번째 정상 도전도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지난해 슈퍼볼 최우수선수(MVP) 페이튼 매닝(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퀘터백)의 친동생으로 뉴욕의 공격을 책임진 엘리 매닝은 4쿼터 결정적인 터치다운 패스를 잊지 않고 성공시켜 우승 일정공신이 됐다.

우즈 역전승...2주 연속 우승

유럽프로골프 두바이데제트 클래식

세계골프 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도 도황제의 우승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우즈는 지난 3일 두바이에미리트골프장(파72.7천 301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두바이데제트 클래식 4리ounder에서 7언더파 65타의 불꽃타를 휘두르며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4타차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상금은 28만3천965

'코트 폭력' 김은경 사상 최고 중징계

남은 경기 출장 정지

WKBL 재정위 결정

여자프로농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은경(25·우리은행)이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태평로빌딩 사무실에서 재정위원회(위원장 이강법)를 열고 김은경에 대한 잔여경기 출장 정지와 반칙금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동안 WKBL에서 나온 가장 강한 선수 징계는 지난달 9일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다 동시 퇴장당한 강지숙(29·금호생명)과 이연화(25·신한은행)에게 내려진 반칙금 100만원이었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정규리그 8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김은경은 최소한 8경기 이상 코트에 나설 수 없게 돼 1999년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최고 중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이 위원장은 "여자농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우리은행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출장 정지 경기 수를 일부 경기로 제한하자는 의견과 '영구제명' 시키자는 의견이 모두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안재환 사무국장은 "일부 경기 출장 정지 조치가 나를 줄 알았는데 남은 경기 모두 출장 정지나 예상 외로 강한 징계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